



오륙도 칼럼



안 중 덕

우리는 평생학습의 시대를 살고 있다. 21세기를 지식기반사회라 한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창출된다.

현대인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가기란 여간 버거운 게 아니다. 조금이라도 망설이거나 지체하면 경쟁에서 밀려날 것 같아 극도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한마디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배우지 않고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다.

사람은 애초부터 배우는 존재로 태어난다. 동물이나 가축들은 태어나서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고작 몇 십 분이다.

동물들은 스스로 몸을 가늘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생리를 따라 살아가는 데에 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부모나 보호자의 헌신적인 돌봄과 가르침 속에서 자란다. 아이는 감각기관을 총동원해서 세상에 대하여 한 가지씩 배워간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인 것이 아니라 배움으로써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다. 어른이 되어서도 사람은 지속적인 배움을 통해 사람다워져 간다.

‘사람답다’는 말은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자아실현을 통하

여 자신과 가정은 물론 지역사회와 민족공동체, 더 나아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배움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만일 사람이 배우기를 포기한다면 그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은 평생학습이 필요한 것이다.

독서기술의 대가인 모티머 J. 애들러가 말하기를 독서는 ‘교사 없이도 배우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했다.

시간과 장소와 금전에 관계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독서’이다. 독서는 책을 읽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인간적인 읽기의 이도 배우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했다. 독서는 텍스트를 통해 저자와 대화하는 것이며, 배경지식을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는 내적·정신적 활동이다. 따라서 독서는 언어

능력, 사고능력을 개발할 뿐 아니라 창의적 인성과 역량을 증진시키는 기반이 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탈(脫)독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읽기’보다는 ‘보는’ 문화로 급속하게 전이된 것이다. 예컨대 요즘에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책 읽는 사람을 찾아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스마트폰의 출현은 정보통신 상의 다양한 기능과 함께 텍스트보다는 영상콘텐츠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모든 지식과 정보의 원천은 텍스트, 즉 책읽기에 있다. 사람은 책읽기를 통해 세상의 변화를 읽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사회의 올바른 변화의 밑거름은 독서하는 사람

이다. 다시 말하면 책임자로 평생 학습 하는 사람들이 변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부산에서도 남구는 자연적 환경과 교육·문화적 기반이 매우 좋은 곳이다.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래서인지 지난 7월 부산시 남구는 교육 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았다.

평생학습도시로서의 환경적 조건과 자치단체 및 지역 공동체의 노력이 빛어낸 결과임에 틀림없다. 이는 참으로 기쁜 일이다. 이제부터는 시설과 행사에 치중하기 보다는 성숙한 평생학습도시답게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더 이상 전성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평생학습도시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일상에서 배우고 삶을 가꿀 수 있는 환경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기존의 평생학습기관들이 있지만 보다 다양하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

과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을 가장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숨어 있는 공간이 있다. 그것은 ‘작은도서관’이다. ‘작은도서관진흥법’(2012. 2. 17)과 시행령으로 인해 작은도서관이 공공시설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개정된 학원법의 제약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작은도서관은 단지 책 읽는 곳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며, 접근성이 좋고 누구와도 격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다.

우리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성공적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평생 학습시설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작은도서관은 풀뿌리공동체이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선택교회 담임목사·샘터품의도서관 대표



&lt;214&gt;

채 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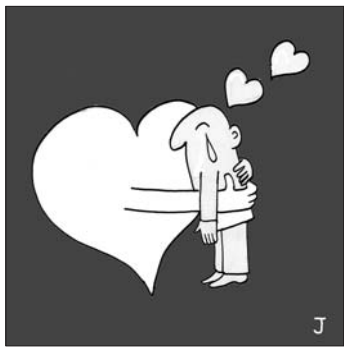
선웅의

1000자 지혜

114

## 사랑의 정치

누구나 장(長)이나 리더가 되면 꼭 같은 생각과 고민을 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많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주고 거가다 흡모와 존경까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맹자(孟子)가 어느 날 양왕(襄王)의 부름을 받았다. 양왕이 물



모가 생기를 찾고 살아날 것인 다. 누가 자라는 바이삭의 힘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이 세상 임금님들은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 중한 벌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무기를 늘리고 병사를 강하게 하여 다른 나라보다 강해진 뒤에 싸움을 더

하여 나라를 더 크게 만들고 천하를 손에 넣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백성을 사랑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는 임금이 나타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임금님을 공경하고 흠모하여 그에게 고개 숙이고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비를 만난 바이삭처럼 아무도 그 많은 사람들의 힘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가능하겠소?” 맹자가 말했다.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에게 편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임금님께서는 비의 모를 아시지요? 모를 심은 뒤에 가뭄이 계속된다면 모는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때맞추어 단비가 내리면 죽어가던

번역문화가

##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는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 경광음 사용 자제를

도로에는 차량이 너무 많아 시끄럽기 그지없는데 여기에 시시각각 울려대는 경광음은 더욱 소음을 부

채질하고 있다.

물론 긴급한 상황일 때는 어쩔 수 없이 경광음을 울려야 하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무분별하게 울려 승객들이나 보행자, 다른 운전자들에게

###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 문화·복지시설 활용위에 노력

옛 남부경찰서 교육시설로 활용하고자 건의하신 우암동 김옥련씨의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활기찬 도시,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한 귀하의 고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부산남구신문 10월 독자의 소리에 건의하신 옛 남부경찰서 부지활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남구 대연동 38-1번지로, 부지면적은 4,345.8㎡이며, 부지 소유자는 경찰청과 부산광역시로써,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다시피, 상호간 부지활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지 활용방안은 소유자인 경찰청과 부산광역시 상호간의 협의결과에 따라 확정되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도시 남구에 걸 맞는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와 복지향상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부산시에 지속

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옛 남부경찰서 부지가 우리 남구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시 및 경찰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기획감사실·강광호>

#### 안내표지판 설치 검토

간판2동 새마을금고 일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박성미씨의 건의에 답변 드립니다.

해당지역은 급경사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성을 위해 과속방지턱, 미끄럼방지포장이 설치되어있으며, 도로에 별도의 시설물 설치하는 어려운 실정이나, 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경사진 도로 / 주차 시 사고 우려 주의’ 라는 안내표지판 설치를 관계기관과 협의 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강병철>

#### 대연수목원 정비

대연수목원 관리를 철저히 하자고 의견을 주신 문현2동 윤달삼님의 건

의에 답변 드립니다.

대연수목원시원은 유치원, 초중학생, 일반시민 등 매일 약 1,000여명이 수목전시원을 방문해 주는데,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여 넘어지고 부러진 꽃말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비토록 하여 이용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설치된 꽃말을 일제 조사하여 잘못 세워진 것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연수목원시원 내 초화류도 꽃이 지고난 후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푸른도시기후기사업소(888-7154 노수길)로 연락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도시기후기사업소·노수길>

계랑기 등과나 기타 급수관련 불편 사항이 있으시면

국번 없이 121번으로

전화주시면 상시 해결해 드립니다.

한 상황이 아니라면 경광음 사용을 자제해 타 운전자나 보행자들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겠다.

우정렬(남천동)

#### 황령산 편백림 이용을

남구는 물론 부산을 대표하는 명산 중 하나가 황령산이라고 누구도 알고 있다. 특히 봉수대가 있어 주말이면 부산 각지에서 찾는 등산객들로 북적거린다.

황령산은 봉수대와 함께 편백림으로도 유명하다. 바람고개에서부터 금련산정초년수련원 방면으로 길게 뻗어 있는 편백림을 걷다보면 불어오는 나무향에 취해 저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다. 얼마 전에는 남구청에서 벤치와 평상 등을 설치하고 도로 주변에 연산홍 등을 심어 더욱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별다른 홍보

가 없어서인지 명성에 비해 이곳을 찾는 이들이 적은 것 같다. 힐링시대 대에 이곳에 치유센터 등을 건립해 전방 정음 산림욕장에 못지않은 명소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렇게 되면 해안절경이 빼어난 이기대과 신선대, 백운포 등과 함께 들에서 있는 편백림을 걷다보면 불어오는 나무향에 취해 저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다. 얼마 전에는 남구청에서 벤치와 평상 등을 설치하고 도로 주변에 연산홍 등을 심어 더욱 걷고 싶은 길로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물론 무조건적인 개발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자연을 최대한 살리고 이를 활용한 시설을 설치해 친환경 산림욕장을 만드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황승환(대연5동)

### ■ 나의 생각

## 지역발전·주민안녕 기원 용호제당



최 대 북

용호제당이 새로운 제당을 건립해 지난달 13일(음력 9월9일) 향사봉행을 하게 된 것을 보충하고 문과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용호제당 신축과 더불어 향사 봉행에 대한 단상을 얘기하려 한다.

용호동은 이조시대 이후부터(서기 1721년) 현재 용호2동 부근에 처음 몇 집이 정착해 향무지를 개간하며 생활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차적으로 바닷가 부근 염전을 일구 제염을 주업으로 또 한 섬자리 어촌을 형성해 고기잡이 등으로 여기저기에 집단부락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형성된 부락의 명칭은 1패, 2패, 3패, 4패로 패수를 선정해 음력 9월20일과 3월20일 일정을 정해 패수 주관으로 부락의 발전과 이웃간의 친목과 화합을 기원하기 위한 토지지신에 대한 향사

를 200년 전부터 봉행해 오고 있다.

전통제례방식으로 현재까지 이어 내려오고 있으며 장자산 제석곡 삼존불당과 산신당에서도 당일 오전 7시 전에 먼저 제를 지내고 있다.

이번에 새로 건립된 용호제당은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제를 지내고 있었으나 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노후돼 여러 가지로 불편했다.

그러던 중 부산시, 남구청의 협조로 새로운 제당을 건립하여 지난 10월13일(음력9월9일) 용호동 향사봉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제당건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많은 분들의 협조로 오늘 용호동 향사 봉행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현 용호동 10만 주민과 더불어 지역민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고 더불어 화합의 자리가 됐으면 한다.

또한 용호제당보존회는 새롭게 건립한 제당을 잘 보존관리하고 전통문화를 잘 계승 발전시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그동안 제당건립을 위해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용호새마을금고 이사장·용호제당 보존회 고문

## 알차고 유익한 남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www.namgusports.or.kr)

■접수기간 : 기존회원 - 12월 17일 부터 20일 까지, 신규회원 - 매일 23일 부터 (선착순 마감)

프로그램	대상	교육일	참가비	수업시간
수영	성인	월 ~ 금	66,000원	6시/7시/8시/9시/10시/11시/13시/14시/18시/19시/20시/21시
		월/수/금	44,000원	13시/14시/15시/16시/17시
	장애우	화/목	33,000원	13시/14시
		화/목	30,000원	15시
	초등	월~금	44,000원	16시/17시
		월/수/금	30,000원	15시/16시/17시
		화/목	25,000원	16시/17시
아쿠아로빅	성인	유아(6~7세) 월/수/금	30,000원	16시/17시
		월/수/금	60,000원	12시/15시(파워반)/18시
		화/목/토	60,000원	12시/13시/15시/18시
헬스	청소년이상	월 ~ 토	44,000원 (청소년 : 38,000원)	06 : 00 ~ 22 : 00 ※ 토 : 09 : 00 ~ 18 : 00
토/일		22,000원 (청소년 : 17,000원)	09 : 00 ~ 18 : 00 (일요일은 한달에2회오픈)	
골프 (일반타석)	누구나	월 ~ 금	110,000원 (청소년 : 88,000원)	08시 ~ 22시 (매시간수업)
		토/일	77,000원 (청소년 : 66,000원)	9시/10시
골프 (스프린터석)		월 ~ 금	143,000원 (청소년 : 121,000원)	08시 ~ 22시 (매시간수업)
		토/일	100,000원 (청소년 : 85,000원)	11시/12시/13시/14시
요가	성인	월/수/금	40,000원	8시/9시/10시/11시/19시/20시
		화/목	30,000원	9시/10시/11시/13시

\* 장기등록할인 : 3개월 (5%), 6개월 (10%)  
12개월 (15%) ☎ 626-8200

\* 패키지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참조  
(www.namgusports.or.kr)

### ■ 독자의 詩

## 가을에는

가을에는 산으로 가자  
가기 낙엽들의 속삭임도 엿듣고  
대지의 자양분으로 돌아가는  
희생의 찬란한 고통을 나도 배우리라

가을에는 강으로 가자  
말없이 흐르는 강물도  
술한 아픔의 여울목을 지나  
속으로 삭인 인고의 시간들이 모여  
저렇게 부드럽고 잔잔한  
속 깊은 아름다움이 되었듯이  
지금의 내 삶도  
적한 강물의 순수와  
금정의 몸짓을 배우고 싶다

가을에는 들로 가자  
풍요의 들만 보다는  
주수가 끝난 허허로운 빈들에 서서  
도시의 온갖 화려함으로 더욱 황폐해진  
내 마음속 욕심과 이기심 다 내려놓고  
사랑과 봉사하는 마음 다지며  
순한 가을빛과 부드러운 바람의 향기를  
가득 채우고 싶다

가을에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낮에는 흰 구름 벗히고  
밤에는 별빛과 노래하며  
저 황홀한 내장산 단풍나무 곁에서  
호수로 수줍게 익어가는  
이름 없는 빨간 열매이고 싶다  
이 가을에는



김 동 섭

용호3동